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사용양식과 금전관리행동

양남희*

조선대학교 가정교육과*

The Money Spending Styles and Money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Family Strengths of Adolescents

Yang, Nam-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ney spending styles and the money management behaviors according to family strengths of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914 high school students. To examine research questions, Cronbach's α , t-test, one-way ANOVA, and Duncan test were used.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amily strengths scores of adolescents was generally moderate, 3.36 points. The money spending styles consist of the stable style, conspicuous style, and indifferent style. The average of indifferent style was 3.33 points, stable style was 3.01 points and conspicuous style was 2.91 points. The money management behaviors consist of the planning, implementing, evaluating, and saving. The average of the planning was 2.81 points, implementing was 2.87 points, evaluating was 2.90 points, saving was 2.50 points. The family strength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oney spending styles and the money management behaviors were detected. The family strengths was very important variable in the money attitude and behavior of adolescent.

Key Words: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금전사용양식(the money spending styles), 금전관리 행동(the money management)

1) 교신저자: Yang, Nam-Hee, 375 SeoSuk-Dong, Dong-gu, Gwang ju 501-759 Korea

Tel: 062-230-7394, Fax: 062-232-8122, E-mail: nhyang@chosun.ac.kr

본 연구는 2009년도 조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가족의 핵가족 체계는 과거에 비해 가족의 연대성을 약화시켜 가족해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정은 인간에게 중요한 생활의 장(場)이며, 가족구성원의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가정이 개인의 성장·발달 및 사회의 안정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현시점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원간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서 체계로서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 것이다. 건강한 가족 내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은 외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가족 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에 용기가 북돋아져서 심리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된다.

양남희와 하윤주(2008)는 청소년에게 가정은 중요한 심리·사회적인 장소이며,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정환경이 지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학교·사회 환경 중에서 인간형성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이 가정환경이라고 보고 청소년기의 부적응 행동은 현대 가족기능의 약화, 부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세은, 2000).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은 건강한 가정환경 내에서 생활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므로 가정환경은 청소년에게 있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소비자들은 대중매체·부모·동년배 및 학교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들의 소비문화를 형성해 간다. 특히 초기 사회화의 장(場)인 가정에서 경험한 소비생활 내용은 청소년의 소비태도 및 소비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소비생활은 모방과 강화를 통해 자녀의 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

성하고 이것이 다시 청소년 자신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침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한편 청소년 시기의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가족의 소속감 유지 등 가족건강성을 느끼는 청소년은 자신의 금전사용 행동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소비생활에 있어 가정은 중요하다(지금수, 1999). 계선자(1997)는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부모의 생활태도를 본받게 되고, 부모의 지도 여하에 따라 청소년의 생활양식이 결정되므로 어머니는 청소년기 자녀가 자신의 그릇된 소비행동을 스스로 깨닫도록 지도하고, 화폐의 중요성을 가르쳐 물자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제와 간섭을 해야 한다고 하여 금전사용양식과 금전관리행동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부모나 형제자매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청소년 자신의 금전사용양식과 금전관리행동도 합리적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는 금전사용양식이나 금전관리행동의 선행변인으로 가족원의 유대나 긍정적인 의사소통, 역할충실, 문제해결 및 경제적 안정 등의 가족 관련 변인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관계를 검증한 경우가 거의 없다. 전체 가족건강성과 하위영역은 가족의 여러 영역을 상세하게 반영하므로 금전사용양식과 금전관리행동의 선행변인으로 선정하여 시험적으로 관계를 검증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금전사용양식 및 금전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관련 변인으로서 가족건강성을 채택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사용양식과 금전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건강성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는 가족해체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던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건강가족이 가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1990년대에 이후 건강가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유영주, 2001).

건강가족 연구의 선구자인 Otto(1962, 윤세은, 2000, 재인용)는 모든 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서의 잠재된 장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따라서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원간에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가족의 개인적 잠재력을 북돋우는 사회·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였다.

유영주(2001)는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도덕적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 기술·의사결정과정·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는 건강가족의 특성을 다른 연구, 가족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연구, 가족건강성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등이 실시되었다.

건강가족의 특성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옥선화와 정민자(1995)는 가족의 가능성이 높은 가족이 사회변화에 잘 대처하는 건강한 가족이며, 유영주(2000)는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간의 사랑·행복·개별성 존중 등 가족원간의 정서적인·유대적인 특성, 가족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 가족 가치관의 공유, 의사소통 등을 도모하는 가족이라고 그 특성을 제시하였다.

가족건강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은 어은주와 유영주(1995)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들에 의해 개발된 가족건강성 척도는 가족유대, 의사소통, 가치체계공유, 문제해결능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유영주(2004)에 개발된 가족건강성 척도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로 구성되었다.

2. 금전사용양식

양식은 태도를 반영하는 결과이며, 따라서 돈에 대한 각 개인의 태도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 양식은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금전사용양식은 금전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결과로 보고 금전(화폐)에 대한 태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Hallowell과 Grace(1991)는 사람들은 화폐를 다루는데 각자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Utah State University Extension Center(1991)에서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지출하는 양식이 달라지며, 금전사용유형을 안정형, 과시형, 욕구형, 비금전가치형, 무관심형의 5유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안정형은 돈을 안정성의 표시로 가치화하여 사용하고, 관심형은 지위나 평판을 나타낼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데 관심을 갖으며 돈을 사용하며, 욕구형은 항상 돈의 부족을 느끼며 불충분한 돈으로 인해 불만을 갖으며 돈을 사용하는 유형이다. 비금전가치형은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돈을 사용하고, 무관심형은 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며 돈에 관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유유자적하는 유형이다(김정훈, 1998).

물론 한 개인이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유형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지출자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지 않고, 각 유형을 금전사용의 측면으로 보아 각 유형별 점수를 보고 개인의 금전사용양식을 조사하였다.

3. 금전관리행동

황덕순(1980)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원으로서의 금전을 사용하는 것을 금전관리이며, 그 결과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금전관리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홍은실과 양남희(2001)는 금전관리행동은 일정한 회계기 동안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지출을 배분하고 계획에 맞추어 실행하고 지출을 기록하여 평가하고 저축을 하는지의 여부로 금전관리행동을 측정하였으며, 권경자와 장상옥(2007)은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용돈관리행동에는 용돈 사용을 계획하는 계획성, 용돈 지출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성, 지출한 용돈 사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평가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4. 가족건강성과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

가족 관련 변인에 따라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핀 연구는 몇 편 있지만 가족건강성 변인에 따른 금전사용양식,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핀 연구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족 관련 변인 중 가족건강성 내에 포함되어 있는 변인을 중심으로 금전사용양식과 금전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사용양식을 살펴보면, 외국의 여러 학자들(Moschis, Moore & Smith, 1984; Ward & Wackman, 1972)은 부모가 자녀와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와 관련된 기능과 태도의 획득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가계경제수준을 가족건강성 척도의 경제적 안정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 서인주와 두경자(2008)는 가계경제수준에 따라 화폐를 사용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은 자신의 처지를 숨기려는 방법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고 비싼 물건을 구매하며, 또한 가계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관리행동을 살펴보면, 신혜선(1994)과 김진아(1996)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소비자 기능과 소비자역할 수행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정덕순(1994)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 대화를 많이 하고, 부모가 청소년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 자녀는 긍정적인 금전관리행동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김일호(1993)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소비자행동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민경미(1995)와 김희선(1995), 지금수(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가정경제의 의사결정행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5.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

본 연구 주요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으로 청소년

의 성별과 학교유형, 학년, 종교,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유형, 부모의 학력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 가족의 건강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양남희·하윤주, 2008; 윤세은, 2000),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가족 건강성 점수가 더 높았다(임정아, 2006). 높은 학년이 낮은 학년의 학생보다 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으며(임정아, 2006),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가족 건강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윤세은, 2000), 종교가 있는 사람 가운데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불교인 사람보다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권미희, 2003). 자신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권미희, 2003; 윤세은, 2000), 부모의 결혼유형이 초혼인 경우가 사별이나 이혼, 재혼의 경우보다 가족건강성 점수가 높았다(임정아, 2006). 부모의 학력은 대부분의 선행연구(강희경, 2005; 윤세은, 2000; 윤연정·이미숙, 2007; 임정아, 2006)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여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나 대학인 경우가 그 이하의 경우보다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금전사용양식에서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과소비성향이 더 높다는 연구(김혜인·이승신, 2003; 유두련 등, 2004; 홍은실, 2005)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는 연구(석봉화, 1997; 이윤금·이남숙, 1999; 이은희, 1999)가 있다. 대학생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과소비성향이 높았으며(이윤금·이남숙, 1999),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해 만족할수록 안정형과 무관심형의 금전사용양식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시형의 금전사용양식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홍은실·양남희, 2001)

금전관리행동에서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출기록이나 구체적인 내용의 점검, 지출시 수입을 넘지 않으려는 금전관리를 더 잘 하며(김정훈, 1993; 김희선, 1995; 양경순, 1993; 홍은실, 2005),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해 만족할수록 저축행동과 실행, 평가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남희·홍은실, 2001). 이기춘(1985)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 점수가 높다고 한 반면 김선희(1991)와 임청자(198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금전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백선옥

(199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금전관리행동이 높다고 하였으나 정미정과 이연숙(2007)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하여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황덕순(1980)과 권경자와 장상옥(200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금전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배경변인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1. 배경변인에 따라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2. 배경변인에 따라 금전사용양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3. 배경변인에 따라 금전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가족건강성에 따라 금전사용양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가족건강성에 따라 금전관리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가족건강성은 한국문화 및 가족특수성에 맞는 척도 개발을 위해 제작된 유영주(2004)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가족건강성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10문항), 유대의식(8문항), 감사와 애정 정서(8문항), 긍정적인 의사소통(7문항), 가치관 목표공유(8문항), 역할충실(6문항), 문제해결(9문

항), 경제적 안정(5문항), 사회와의 유대(7문항)로 총 6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금전사용양식은 Utah State University Extension Center (1991)에서 제안된 지출자 유형(안정형, 과시형, 욕구형, 비금전가치형, 무관심형)을 사용하였다. 각 유형별 4문항씩 총 20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금전사용양식의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욕구형과 비금전가치형의 신뢰도 계수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과시형 문항 가운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금전사용양식의 하위영역으로 안정형과 과시형, 무관심형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금전관리행동 척도는 양남희와 홍은실(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1년 혹은 한 달의 주기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지출비목별로 금액을 배분하는 예산에 해당하는 계획행동 3문항, 계획대로 실행하려는 노력과 중간점검, 금전출납부 등의 지출기록을 포함한 실행 3문항, 계획과 비교하여 지출결산을 하는 평가행동 3문항, 저축행동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인 금전관리를 하는 것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가족건강성 척도구성 및 신뢰도

변인	하위영역	문항수	신뢰도
가족건강성	가족원에 대한 존중	10	.90
	유대의식	8	.87
	감사와 애정정서	8	.90
	긍정적인 의사소통	7	.87
	가치관 목표공유	8	.84
	역할충실	6	.89
	문제해결	9	.87
	경제적 안정	5	.84
	사회와의 유대	7	.87
	전체	68	.97
금전사용양식	안정형	4	.72
	과시형	3	.66
	무관심형	4	.67
금전관리행동	계획	3	.78
	실행	3	.54
	평가	3	.75
	저축	1	-
	전체	10	.84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	변인	구분	N	%
성별	남자	589	64.4	가족유형	초혼	731	79.8
	여자	325	35.6		비초혼	185	20.2
학교유형	인문계	507	55.5	종교	무	481	52.5
	실업계	407	44.5		유	435	47.5
학년	1학년	319	34.9	부학력	중졸이하	39	4.4
	2학년	319	34.9		고졸	310	35.1
	3학년	275	30.2		대학이상	534	60.5
주관적 사회·경제수준	상	260	29.3	모학력	중졸이하	44	5.0
	중	332	37.5		고졸	484	55.0
	하	294	33.2		대학이상	352	40.0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인 청소년이다. 2008년 9월-10월 인문계 A, B고등학교와 실업계 C, D고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수업시간에 질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총 1,000부를 배포하여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91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 test를 실시하였고,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3〉 가족건강성,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

변인	하위영역	M	SD
가족건강성	가족원에 대한 존중	3.61	.73
	유대의식	3.41	.80
	감사와 애정정서	3.54	.83
	긍정적인 의사소통	3.27	.82
	가치관 목표 공유	3.24	.71
	역할충실	3.38	.81
	문제해결능력	3.40	.72
	경제적 안정	3.41	.80
	사회와의 유대	2.85	.88
	전체 가족건강성	3.36	.63
금전사용양식	안정형	3.01	.84
	과시형	2.91	.81
	무관심형	3.33	.78
금전관리행동	계획	2.81	.98
	실행	2.87	.83
	평가	2.90	.96
	저축	2.50	1.18
	전체 금전관리행동	2.82	.75

IV. 결과해석

1. 가족건강성과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

가족건강성,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가족건강성 아홉 가지 영역 가운데 가족원에 대한 존중의 점수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감사와 애정정서로 3.54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대 의식과 경제적 안정이 각각 3.41점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 역할충실,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 공유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와의 유대는 2.85점으로 중간 점수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총 가족건강성 점수는 3.36이었다.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 가족, 특히 청소년이 응답한 가족건강성이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전사용양식을 살펴보면, 세 가지 양식 가운데 무관심형의 점수가 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정형은 3.01, 과시형은 2.91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청소년은 돈을 사용하는 양식에서 특별한 양식이 두드러지기보다 3양식 모두 중간 정도의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의 과시형 금전사용양식이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홍은실과 양남희(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청소년의 과소비비가 심각하다고

<표 4-1>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1)

변인	구분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공유	
		M	D	M	D	M	D	M	D	MD	D
성별	남학생	3.59		3.36		3.47		3.24		3.26	
	여학생	3.64		3.50		3.69		3.32		3.21	
t		-1.08		-2.65**		-3.84***		-1.62		1.02	
학교유형	인문계	3.69		3.55		3.68		3.38		3.29	
	실업계	3.52		3.23		3.37		3.12		3.17	
t		3.50***		6.07***		5.69***		4.91***		2.65**	
학년	1학년	3.60		3.35		3.50		3.17	b	3.20	
	2학년	3.62		3.44		3.60		3.31	a	3.25	
	3학년	3.60		3.43		3.53		3.32	a	3.27	
F		0.08		1.21		1.08		3.16*		0.78	
종교	무	3.53		3.33		3.44		3.18		3.16	
	유	3.69		3.49		3.65		3.36		3.33	
t		-3.50***		-2.93**		-3.85***		-3.24**		-3.62***	
주관적 사회·경제수준	상	3.67		3.56	a	3.65	a	3.40	a	3.37 a	
	중	3.62		3.40	b	3.53	ab	3.24	b	3.18 b	
	하	3.53		3.29	b	3.46	b	3.17	b	3.18 b	
F		2.70		8.29**		3.58*		5.93**		6.81**	
가족유형	초혼	3.66		3.49		3.62		3.33		3.30	
	비초혼	3.40		3.07		3.22		3.00		3.00	
t		4.00***		6.07***		5.52***		4.88***		5.20***	
부학력	중졸이하	3.47	b	3.26	b	3.57		3.23		3.26	
	고졸	3.53	b	3.33	b	3.45		3.22		3.19	
	대학이상	3.61	a	3.46	a	3.58		3.29		3.27	
F		3.35*		3.16*		2.57		0.79		1.18	
모학력	중졸이하	3.48	b	3.25		3.47		3.25		3.19	
	고졸	3.56	b	3.37		3.49		3.25		3.21	
	대학이상	3.68	a	3.48		3.62		3.30		3.29	
F		3.26*		2.95		2.56		0.44		1.59	

*p<.05, **p<.01, ***p<.001

지적인 연구들(서정희·석봉화, 1997; 한성희·강이주, 2009)과 상이한 결과로 고무할만한 결과이다.

금전관리행동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전관리행동(2.82점)은 중간이하 수준을 나타냈다. 하위영역 가운데서는 저축행동이 2.5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계획행동이 2.81점, 실행행동이 2.87점, 평가행동이 2.90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금전관리에서 지출과 평가행동은 중간 수준인데 비해 지출의 계획을 세우고, 특히 저축을 하는 수준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 수준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소비행동의 합리성 수준이 높지 않다는 연구(권미화·이기춘, 2000)와 유사하다.

2.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

1)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표 4-2>와 같다.

가족원에 대한 존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은 학교유형($t=3.50, p<.001$), 종교($t=-3.50, p<.001$), 가족유형($t=4.00, p<.001$), 부학력($F=3.35, p<.05$), 모학력($F=3.26, p<.05$)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비초혼 가족보다 초혼 가족

<표 4-2>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2)

변인	구분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전체 가족건강성	
		M	D	M	D	M	D	M	D	M	D
성별	남자	3.40		3.40		3.41		2.88		3.35	
	여자	3.36		3.40		3.42		2.79		3.39	
t		0.88		-0.03		-0.09		1.46		-0.99	
학교유형	인문계	3.47		3.51		3.59		2.87		3.46	
	실업계	3.28		3.27		3.20		2.83		3.24	
t		3.39***		4.96***		7.62***		0.74		5.38***	
학년	1학년	3.32	b	3.36		3.37		2.83	ab	3.32	
	2학년	3.37	ab	3.40		3.42		2.77	b	3.37	
	3학년	3.48	a	3.45		3.46		2.96	a	3.40	
F		3.31*		0.95		0.98		3.59*		1.30	
종교	무	3.30		3.30		3.35		2.73		3.27	
	유	3.47		3.51		3.49		2.98		3.45	
t		-3.22**		-4.60**		-2.68**		-4.19**		-4.47**	
주관적 사회·경제수준	상	3.52	a	3.52	a	3.71	a	3.01	a	3.49	a
	중	3.35	b	3.38	b	3.45	b	2.83	b	3.34	b
	하	3.29	b	3.31	b	3.11	c	2.70	b	3.25	b
F		6.17**		6.45**		42.86***		9.13***		11.07***	
가족유형	초혼	3.45		3.46		3.51		2.90		3.42	
	비초혼	3.11		3.15		3.03		2.63		3.09	
t		5.09***		5.26***		7.53***		3.77***		6.64***	
부학력	중졸이하	3.43		3.30	b	3.06	b	3.66		3.27	b
	고졸	3.32		3.32	b	3.31	a	3.83		3.29	b
	대학이상	3.42		3.46	a	3.51	a	3.88		3.40	a
F		1.38		4.11*		10.19***		1.32		3.47*	
모학력	중졸이하	3.29		3.24		3.15		2.78		3.25	
	고졸	3.38		3.39		3.42		2.82		3.33	
	대학이상	3.40		3.45		3.46		2.90		3.41	
F		0.41		1.86		2.94		1.05		2.43	

* $p<.05$, ** $p<.01$, *** $p<.001$

에 속한 학생이,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학생보다 대학 이상인 학생이 '가족원에 대한 존중'을 보다 높게 보고하였다. 즉 인문계 학생과 종교가 있는 학생, 초혼 가족에 속한 학생, 부모가 대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가정에서 가족원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족건강성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유대의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은 성별($t=-2.65, p<.01$), 학교유형($t=6.07, p<.001$), 종교($t=-2.93, p<.01$), 주관적 사회·경제수준($F=8.29, p<.01$), 가족유형($t=6.07, p<.001$), 부학력($F=3.16, p<.05$)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실업계보다 인문계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이 중 이하보다 상인 집단이, 비초혼 가족보다 초혼 가족이,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보다 대학이상인 학생이 가족의 유대의식을 보다 높게 보고하였다. 즉 가족의 화목과 단결, 생활 공유 등 가족원의 유대의식은 여학생과 인문계 학생, 자신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학생, 초혼 가족에 속한 학생, 아버지가 대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감사와 애정정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성별($t=-3.84, p<.001$), 학교유형($t=5.69, p<.001$), 종교($t=-3.85, p<.001$), 주관적 사회·경제수준($F=3.58, p<.05$), 가족유형($t=5.52, p<.001$)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실업계보다 인문계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이 상인 학생이, 가족유형이 비초혼보다 초혼 가족에 속한 학생이 가족의 '감사와 애정정서'를 높게 보고하였다. 즉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감사, 애정의 표현은 여학생과 인문계 학생, 종교가 있는 학생, 자신의 가정의 사회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학생, 초혼가족에 속한 학생의 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은 학교유형($t=4.91, p<.001$), 학년($F=3.16, p<.05$), 종교($t=-3.24, p<.01$), 주관적 사회·경제수준($F=5.93, p<.01$), 가족유형($t=4.88, p<.001$)로 나타났다. 학교가 실업계인 학생보다 인문계인 학생이, 1학년보다 2, 3학년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이 중·하인 학생보다 상인 학생이, 부모가 비초혼보다 초혼인 가정의 학생이 가족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보다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가족원간에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인

문계 학생과 2, 3학년 학생, 종교가 있는 학생, 자신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학생, 초혼가족에 속한 학생의 가정에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목표공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학교유형($t=2.65, p<.01$), 종교($t=-3.62, p<.001$), 주관적 사회·경제수준($F=6.81, p<.01$), 가족유형($t=5.20, p<.001$)으로 나타났다. 실업계보다 인문계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이 중·하보다 상인 학생이, 부모가 비초혼보다 초혼인 학생이 '가치관 목표공유'의 가족건강성을 보다 높게 보고하였다. 즉 가족원간에 인생관을 공유하면서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사고를 하는 것은 인문계 학생과 종교가 있는 학생, 자신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높게 지각한 학생, 초혼가족에 속한 학생의 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역할충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학교유형($t=3.39, p<.001$), 학년($F=3.31, p<.05$), 종교($t=-3.22, p<.01$), 주관적 사회·경제수준($t=6.17, p<.01$), 가족유형($t=5.09, p<.001$)로 나타났다. 실업계보다 인문계에 재학 중인 학생이, 1학년보다 3학년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이 중이나 하인 학생보다 상인 학생이, 가족유형이 비초혼보다 초혼인 가정의 학생이 가족원의 '역할충실'을 높게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가정내 역할분담이 공평하며 맡은 역할에 충실한 경향은 인문계 학생과 3학년 학생, 종교가 있는 학생, 자신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학생, 초혼가족에 속한 학생 가정에서 높은 것이다.

문제해결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학교유형($t=4.96, p<.001$), 종교($t=-4.60, p<.01$), 주관적 사회·경제수준($F=6.45, p<.01$), 가족유형($t=5.26, p<.001$), 부학력($F=4.11, p<.05$)로 나타났다. 실업계보다 인문계 학생이, 종교가 있는 학생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학생이, 초혼인 가정의 학생이,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학생이 가족의 위기관리 능력이나 대처능력 등 '문제해결능력'이 보다 뛰어나다고 보고함으로써 그 가정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안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학교유형($t=7.62, p<.001$), 종교($t=-2.68, p<.01$), 주관적 사회·경제수준($F=42.86, p<.001$), 가족유형($t=7.53, p<.001$),

부학력(F=10.19, p<.001)로 나타났다. 인문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종교가 있는 학생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의 학생이, 초혼가정의 학생이,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학생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더 높게 보고함으로써 그들의 가정이 경제적 관리와 여유 측면에서 보다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와의 유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학년(F=3.59, p<.05), 종교(t=-4.19, p<.01), 주관적 사회·경제수준(F=9.13, p<.001), 가족유형(t=3.77, p<.001)으로 나타났다. 2학년보다 3학년이, 종교가 있는 학생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이 상인 학생이, 부모가 초혼인 가정의 학생이 자신의 가정이 '사회와의 유대'가 보다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그들의 가정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학교유형(t=5.38, p<.0010, 종교(t=-4.47, p<.01), 주관적 사회·경제수준(F=11.07, p<.001), 가족유형(t=6.64, p<.001), 부학력(F=3.47, p<.05)으로 나타났다. 실업계보다 인문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이 상인 학생이, 가족유형이 초혼 가정의 학생이,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학생 가정이 전체적으로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 학생이, 종교가 있는 학생이,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초혼 가정의 학생이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김명자, 2004; 윤세은, 2000; 임정아, 2008; 장지연, 2005)결과와 일치한다.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금전사용양식

변인	구분	안정형		과사형		무관심형	
		M	D	M	D	M	D
성별	남학생	2.96		2.92		3.28	
	여학생	3.11		2.89		3.42	
t		-2.71**		0.54*		-2.62**	
학교유형	인문계	3.12		2.93		3.37	
	실업계	2.88		2.88		3.28	
t		4.30***		1.10		1.60	
학년	1학년	2.99		2.86		3.39	
	2학년	2.99		2.92		3.30	
	3학년	3.07		2.95		3.30	
F		0.83		1.05		1.31	
종교	무	3.01		2.88		3.35	
	유	3.02		2.94		3.30	
t		-0.11		-1.02		1.04	
주관적 사회·경제수준	상	3.04		3.03	a	3.23	b
	중	3.01		2.87	b	3.31	b
	하	3.00		2.85	b	3.45	a
F		0.23		3.96*		6.03**	
가족유형	초혼	3.07		2.97		3.32	
	비초혼	2.79		2.67		3.34	
t		4.08***		4.62***		-0.18	
부학력	중졸이하	3.07		2.88		3.28	
	고졸	3.02		2.89		3.31	
	대학이상	3.00		2.93		3.34	
F		0.14		0.33		0.25	
모학력	중졸이하	3.13		2.95		3.30	
	고졸	3.02		2.92		3.32	
	대학이상	2.98		2.89		3.34	
F		0.73		0.26		0.13	

*p<.05, **p<.01, ***p<.001

2) 배경변인에 따른 금전사용양식

배경변인에 따른 금전사용양식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안정형 금전사용양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성별($t=-2.71, p<.01$), 학교유형($t=4.30, p<.001$), 가족유형($t=4.08, p<.001$)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보다 인문계에 다니는 학생이, 부모가 비초혼인 학생보다 초혼인 학생이 돈을 안정성의 표시로 여기며, 적절한 금전사용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형 금전사용양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성별($t=0.54, p<.05$), 주관적 사회·경제수준($F=3.96, p<.05$), 가족유형($t=4.62, p<.001$)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이 중·하인 학

생보다 상인 학생이, 부모가 초혼인 학생보다 비초혼인 학생이 돈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관심형 금전사용양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성별($t=-2.62, p<.01$)과 주관적 사회·경제수준($F=6.03, p<.01$)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이 상·중인 학생보다 하인 학생이 돈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배경변인에 따른 금전관리행동

배경변인에 따른 금전관리행동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계획과 저축, 전체 금전관리행동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금전관리행동

변인	구분	계획		실행		평가		저축		전체 금전관리행동	
		M	D	M	D	M	D	M	D	M	D
성별	남자	2.82		2.80		2.85		2.55		2.79	
	여자	2.79		3.00		3.00		2.42		2.88	
	t	0.52		-3.44***		-2.25*		1.59		-1.59	
학교유형	인문계	2.81		2.95		2.96		2.52		2.86	
	실업계	2.81		2.77		2.83		2.49		2.77	
	t	0.01		3.30**		1.97*		0.37		1.86	
학년	1학년	2.89		2.91		2.90		2.47		2.86	
	2학년	2.81		2.81		2.87		2.45		2.79	
	3학년	2.72		2.91		2.94		2.61		2.83	
	F	2.20		1.49		0.38		1.56		0.70	
종교	무	2.77		2.85		2.88		2.50		2.80	
	유	2.85		2.89		2.92		2.50		2.84	
	t	-1.12		-0.67		-0.56		-0.05		-0.85	
주관적 사회·경제수준	상	2.85		2.84		2.90		2.56		2.83	
	중	2.76		2.87		2.87		2.53		2.80	
	하	2.82		2.86		2.90		2.40		2.82	
	F	0.61		0.12		0.09		1.50		0.10	
가족유형	초혼	2.83		2.89		2.92		2.52		2.84	
	비초혼	2.73		2.78		2.83		2.42		2.74	
	t	1.21		1.59		1.12		1.02		1.56	
부학력	중졸이하	3.06		2.83		2.99		2.38		2.90	
	고졸	2.83		2.95		2.90		2.48		2.85	
	대학이상	2.78		2.83		2.88		2.53		2.80	
	F	1.62		1.94		0.28		0.36		0.70	
모학력	중졸이하	2.98		2.96		3.11		2.55		2.97	
	고졸	2.85		2.90		2.92		2.48		2.85	
	대학이상	2.73		2.82		2.84		2.53		2.77	
	F	2.25		1.18		1.82		0.22		1.98	

* $p<.05$, ** $p<.01$, *** $p<.001$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행은 성별($t=-3.44, p<.001$)과 학교유형($t=3.30,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보다 인문계에 다니는 학생이 금전관리에서 지출기록이나 중간점검 등 실행을 보다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난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성별($t=-2.25, p<.05$)과 학교유형($t=1.97, p<.05$)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보다 인문계에 다니는 학생이 금전관리에서 평가행동을 보다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용돈관리행동에서 평가성이 높다는 이승신과 유재경(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금전관리행동을 보다 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일상적인 소비담당자는 어머니이며, 사회화 과정에서 딸에게 어머니가 주역할 모델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의 금전관리행동이 남학생에 비해 합리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사용양식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사용양식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안정형 금전사용양식의 차이를 가족건강성 하위변인과 전체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원에 대한 존중($F=16.49, p<.001$), 유대의식($F=19.32, p<.001$), 감사와 애정정서($F=17.87, p<.001$), 긍정적인 의사소통($F=19.38, p<.001$), 가치관 목표공유($F=17.06, p<.001$), 역할충실($F=18.04, p<.001$), 문제해결능력($F=23.58, p<.001$), 경제적 안정($F=11.91, p<.001$), 사회와의 유대($F=8.13, p<.01$), 전체 가족건강성($F=29.69,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전체 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안정형 금전사용양식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과시형 금전사용양식의 차이를 가족건강성 하위 변인과 전체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원에 대한 존중($F=14.72, p<.001$), 유대의식($F=16.58, p<.001$), 감사와 애정정서

($F=10.33, p<.001$), 긍정적인 의사소통($F=19.86, p<.001$), 가치관 목표공유($F=15.74, p<.001$), 역할충실($F=9.35, p<.001$), 문제해결능력($F=16.77, p<.001$), 경제적안정($F=16.66, p<.001$), 사회와의 유대($F=7.94, p<.01$), 전체 가족건강성($F=19.30,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전체 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과시형 금전사용양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무관심형 금전사용양식의 차이를 가족건강성 하위 변인과 전체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F=5.10, p<.01$), 경제적 안정($F=6.02, p<.01$), 사회와의 유대($F=8.47,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공유, 역할충실, 총 가족건강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가 낮은 경우 무관심형 금전사용양식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기 가정의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식한 학생은 안정형의 금전사용양식뿐만 아니라 과시형 금전사용양식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건강성 지각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동양식을 낳은 것을 알 수 있다.

4.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관리행동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관리행동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계획행동의 차이를 가족건강성 하위변인과 전체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원에 대한 존중($F=7.70, p<.01$), 유대의식($F=7.69, p<.001$), 감사와 애정정서($F=10.14, p<.001$), 긍정적인 의사소통($F=5.52, p<.01$), 가치관 목표공유($F=12.77, p<.001$), 역할충실($F=9.07, p<.001$), 문제해결능력($F=7.79, p<.001$), 경제적 안정($F=4.45, p<.05$), 사회와의 유대($F=5.05, p<.01$), 전체 가족건강성($F=12.82,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전체 가족

〈표 7〉 가족건강성 따른 금전사용양식

변인	구분	안정형		과시형		무관심형	
		M	D	M	D	M	D
가족원에 대한 존중	상	3.19	a	3.09	a	3.30	
	중	3.03	b	2.90	b	3.32	
	하	2.81	c	2.74	c	3.36	
F		16.49***		14.72***		0.42	
유대의식	상	3.23	a	3.11	a	3.36	
	중	3.01	b	2.89	b	3.32	
	하	2.81	c	2.74	c	3.30	
F		19.32***		16.58***		0.48	
감사와 애정정서	상	3.18	a	3.06	a	3.31	
	중	3.05	a	2.89	b	3.37	
	하	2.80	b	2.80	b	3.31	
F		17.87***		10.33***		0.60	
긍정적인 의사소통	상	3.23	a	3.14	a	3.32	
	중	3.00	b	2.85	b	3.28	
	하	2.81	c	2.74	b	3.39	
F		19.38***		19.86***		1.41	
가치관 목표공유	상	3.20	a	3.13	a	3.34	
	중	3.03	b	2.83	b	3.29	
	하	2.79	c	2.78	b	3.37	
F		17.06***		15.74***		0.78	
역할충실	상	3.21	a	3.07	a	3.31	
	중	3.00	b	2.86	b	3.31	
	하	2.78	c	2.79	b	3.37	
F		18.04***		9.35***		0.49	
문제해결능력	상	3.21	a	3.06	a	3.27	b
	중	3.06	b	2.97	a	3.27	b
	하	2.76	c	2.70	b	3.44	a
F		23.58***		16.77***		5.10**	
경제적안정	상	3.20	a	3.11	a	3.21	b
	중	3.02	b	2.93	b	3.32	ab
	하	2.87	c	2.73	c	3.43	a
F		11.91***		16.66***		6.02**	
사회와의 유대	상	3.17	a	3.07	a	3.14	b
	중	3.02	b	2.90	b	3.38	a
	하	2.86	c	2.78	b	3.40	a
F		8.13**		7.94**		8.47**	
전체 가족건강성	상	3.26	a	3.13	a	3.27	
	중	3.03	b	2.87	b	3.34	
	하	2.73	c	2.72	c	3.37	
F		29.69***		19.30***		1.20	

*p<.05, **p<.01, ***p<.001

연속변인 집단구분 : 상(M+SD/2이상), 중(M=SD/2), 하(M-SD/2이하)

건강성이 높은 경우 금전관리에서 계획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의 차이를 가족건강성 하위변인과 전체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원에 대한 존중(F=7.73, p<.01), 유대의식

(F=16.28, p<.001), 감사와 애정정서(F=14.56, p<.001), 긍정적인 의사소통(F=12.39, p<.001), 가치관 목표공유(F=7.94, p<.001), 역할충실(F=5.83, p<.01), 문제해결능력(F=13.08, p<.001), 경제적 안정(F=4.58, p<.05), 사회와의 유대(F=5.88,

〈표 8〉 가족건강성 따른 금전관리행동

변인	구분	계획		실행		평가		저축		전체 금전관리행동	
		M	D	M	D	M	D	M	D	M	D
가족원에 대한 존중	상	2.97	a	2.98	a	3.03	a	2.70	a	2.96	a
	중	2.80	b	2.91	a	2.92	a	2.41	b	2.83	b
	하	2.66	b	2.72	b	2.74	b	2.40	b	2.68	c
F		7.70**		7.73**		6.73**		6.56**		10.82***	
유대의식	상	2.98	a	3.03	a	3.04	a	2.68	a	2.98	a
	중	2.79	b	2.89	b	2.90	ab	2.48	b	2.82	b
	하	2.67	b	2.70	c	2.76	b	2.36	b	2.67	c
F		7.69***		16.28***		6.30**		6.04**		12.60***	
감사와 애정정서	상	2.94	a	3.04	a	3.08	a	2.60		2.97	a
	중	2.88	a	2.87	b	2.85	b	2.51		2.83	b
	하	2.61	b	2.69	c	2.77	b	2.40		2.66	c
F		10.14***		14.56***		8.77***		2.14		13.99***	
긍정적인 의사소통	상	2.94	a	3.03	a	3.13	a	2.70	a	2.99	a
	중	2.82	ab	2.89	b	2.83	b	2.46	b	2.81	b
	하	2.67	b	2.70	c	2.74	b	2.36	b	2.67	c
F		5.52**		12.39***		13.47***		6.43**		14.34***	
가치관 목표공유	상	3.03	a	2.99	a	3.05	a	2.64	a	2.98	a
	중	2.78	b	2.90	a	2.92	a	2.55	a	2.83	b
	하	2.62	b	2.72	b	2.71	b	2.31	b	2.65	c
F		12.77***		7.94***		8.73***		5.92**		14.16***	
역할충실	상	2.95	a	2.96	a	2.98		2.63	a	2.92	a
	중	2.84	a	2.89	a	2.89		2.51	ab	2.84	a
	하	2.59	b	2.72	b	2.81		2.33	b	2.67	b
F		9.07***		5.83**		1.91		3.93*		7.66***	
문제해결능력	상	2.99	a	3.06	a	3.11	a	2.70	a	3.01	a
	중	2.75	b	2.83	b	2.83	b	2.47	b	2.78	b
	하	2.69	b	2.73	b	2.77	b	2.34	b	2.69	b
F		7.79***		13.08***		10.77***		7.31***		15.47***	
경제적안정	상	2.91	a	2.96	a	3.08	a	2.73	a	2.96	a
	중	2.85	a	2.91	a	2.87	b	2.48	b	2.84	a
	하	2.69	b	2.77	b	2.78	b	2.35	b	2.71	b
F		4.45*		4.58*		7.24***		8.10***		8.41***	
사회와의 유대	상	2.96	a	3.01	a	3.06	a	2.78	a	2.98	a
	중	2.80	ab	2.86	b	2.87	b	2.48	b	2.81	b
	하	2.68	b	2.75	b	2.80	b	2.30	b	2.70	b
F		5.05**		5.88**		4.08**		9.99***		8.82***	
전체 가족건강성	상	2.99	a	3.03	a	3.11	a	2.70	a	3.00	a
	중	2.83	b	2.91	a	2.88	b	2.50	b	2.84	b
	하	2.58	c	2.65	b	2.71	c	2.29	c	2.61	c
F		12.82***		15.64***		12.37***		8.31***		19.90***	

*p<.05, **p<.01, ***p<.001

연속변인 집단구분 : 상(M+SD/2이상), 중(M+SD/2), 하(M-SD/2이하)

p<.01), 총 가족건강성(F=15.64,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전체 가족건강성

강성이 높은 경우 금전관리에서 실행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행동의 차이를 가족건강성 하위변인과 전체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역할충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고, 가족원에 대한 존중(F=6.73, $p<.01$), 유대의식(F=6.30, $p<.001$), 감사와 애정정서(F=8.77, $p<.001$), 긍정적인 의사소통(F=13.47, $p<.001$), 가치관 목표공유(F=8.73, $p<.001$), 문제해결능력(F=10.77, $p<.001$), 경제적 안정(F=7.24, $p<.001$), 사회와의 유대(F=4.08, $p<.01$), 전체 가족건강성(F=12.3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공유,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전체 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금전관리에서 평가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행동의 차이를 가족건강성 하위변인과 전체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감사와 애정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원에 대한 존중(F=6.56, $p<.01$), 유대의식(F=6.04, $p<.01$), 긍정적인 의사소통(F=6.43, $p<.01$), 가치관 목표공유(F=5.92, $p<.01$), 역할충실(F=3.93, $p<.05$), 문제해결능력(F=7.31, $p<.001$), 경제적 안정(F=8.10, $p<.001$), 사회와의 유대(F=9.99, $p<.001$), 전체 가족건강성(F=8.3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전체 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금전관리에서 저축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전관리행동의 차이를 가족건강성 하위변인과 전체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가족원에 대한 존중(F=10.82, $p<.001$), 유대의식(F=12.60, $p<.001$), 감사와 애정정서(F=13.99, $p<.001$), 긍정적인 의사소통(F=14.34, $p<.001$), 가치관 목표공유(F=14.16, $p<.001$), 역할충실(F=7.66, $p<.001$), 문제해결능력(F=15.47, $p<.001$), 경제적 안정(F=8.41, $p<.001$), 사회와의 유대(F=8.82, $p<.001$), 전체 가족건강성(F=19.90,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전체 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전체 금전관리행동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가족건강성(3.36점)은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하위영역에서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감사와 애정정서, 유대의식, 경제적 안정, 문제해결능력, 역할충실,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공유 순으로 높았고, 사회와의 유대는 중간점수 이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자기 가족원을 서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에서의 가족건강성은 높은 데 비해 이웃과의 교제나 봉사, 사회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는 사회와의 유대 부분의 가족건강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서 가족중심 성향을 엿볼 수 있었다. 미래 사회는 이웃, 더 나아가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과 유대를 배제하고는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족건강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변인은 종교와 가족유형으로 모든 하위영역과 전체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그 영향력의 방향도 동일하여 종교가 있는 학생, 부모가 초혼인 가정의 학생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은 학교유형(인문계, 실업계)과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으로 인문계 재학 학생, 주관적 사회·경제수준을 높게 지각한 학생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 부모의 학력도 가족건강성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낸 변인으로 여학생, 고학년, 부모의 학력이 높은 학생이 자기 가정의 가족건강성을 부분적으로 높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8개 배경변인 모두 가족건강성에 의미있는 변인이었기 때문에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노력에 이들 변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금전사용양식은 무관심형이 중간점수보다 약간 높고 안정형은 중간점수, 과시형은 중간점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돈을 사용하는 데 특별한 양식이 두드러지기보다 3양식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금전을 사용하는데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되는데

로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금전사용양식이라고 할 때 무관심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금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금전사용양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들 가운데 가장 큰 영향변인은 성별이다. 여학생이 안정형과 무관심형의 금전사용양식을 더 많이 보였고 남학생은 과시형의 금전사용양식을 더 많이 나타냈다. 주관적 사회·경제수준과 가족유형, 학교유형도 금전사용양식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자기 가정의 사회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학생은 과시형의 금전사용양식 성향이 높고, 무관심형의 성향은 더 낮았다. 가족유형에서는 초혼 가정의 학생은 안정형 금전사용양식 성향이 높을 뿐 아니라 과시형 금전사용양식의 성향도 높았다. 학교유형에서는 인문계 학생이 안정형 금전사용양식 성향이 더 높았다. 과시형과 무관심형이 문제가 되는 금전사용양식이라고 할 때 남학생과 자신의 가정의 사회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학생, 초혼 가정의 학생에게서는 과시적 소비성향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며, 여학생과 자신의 가정의 사회경제수준이 낮다고 지각한 학생에게서는 돈에 대해 무관심한 성향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보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은 전체적으로 중간이하 수준(2.82점)이었고, 특히 저축행동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은 전체적으로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단지 성별과 학교유형만이 실행과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과 인문계 학생이 실행과 평가의 금전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전관리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남학생과 실업계 학생에게 바람직한 소비역할모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들의 소비자교육이 보다 더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 중 저축과 계획행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자녀가 용돈의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의 지속적인 용돈 관리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사용양식은 전반적으로 가족건강성이 높은 청소년이 금전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고 가족건강성이 낮은 청소년이 돈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을 높임으로써 청소년이 돈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함양할 수 있으므로 가족건강성을 함양하는 것이 올바

른 금전사용양식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가족건강성은 자긍심이 높을수록,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높기 때문에 청소년이 본인 가정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부모가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되며, 가족원 간에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가족건강성이 높은 청소년이 과시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9개의 가족건강성 하위변인과 전체변인이 거의 모든 금전관리행동 하위영역과 전체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관계의 방향성도 동일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이 자신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을 하였다.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은 가족, 특히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모들이 올바른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교육 차원의 소비자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소비지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소비지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이 잘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통해 가정의 소득과 지출, 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금전적 의사결정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이 자녀가 가계 재정현실을 객관적으로 자각하고, 금전관리행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경(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13.
- 계선자(199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2(1), 19-37.
- 권경자·장상옥(2007). 주체별 소비자교육이 중학생 소비자의 용돈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4), 153-173.
- 권미화·이기춘(2000). 청소년소비자의 소비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 175-190.
- 권미희(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병자(2004). 부모와 대학생 자녀의 가족생활에 관한 가치의식과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9(3), 55-80.
- 김진희(1991). **청소년의 소비자능력에 관한 연구: 광주직할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일호(1993). **고등학생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훈(1993). 남녀 대학생들의 금전관리 관련행태와 인식. **소비생활연구**, 11, 43-54.
- 김정훈(1998). 성격유형에 따른 재정관련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이해. **소비자학연구**, 9(2), 21-36.
- 김진아(1996). **청소년의 소비자사회화과정 및 소비자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인 · 이승신(2003). 청소년소비자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145-156.
- 김희선(1995). **청소년의 용돈관리 의식과 용돈관리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경미(1995).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금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선옥(1991). **청소년소비자의 금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와 경북 안동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인주 · 두경자(2008). 대학생 소비자의 화폐사용 태도와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가 재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23-43.
- 서정희 · 석봉화(1997).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가치와 소비지향적 태도가 과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문화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9-123.
- 신혜선(1994). **청소년기 자녀의 소비자사회화유형과 소비자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경순(1993). **청소년의 금전관리 의식과 소비행동과의 관계연구: 제천시 중고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남희 · 하운주(2008).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의 영향 변인. **한국가정과학회지**, 11(1), 63-71.
- 양남희 · 홍은실(2007). 여고생의 가치지향성과 금전사용양식이 금전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2), 37-46.
- 어은주 ·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옥선화 · 정민자(1995). **한국 가족문제: 진단과 전망**. 도서출판 하우.
- 유두련 · 박영미 · 함현정(2004). 중고등학생의 과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7(1), 23-46.
- 유영주(2000). **현대결혼과 가족**. 신평출판사.
-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교문사.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 관계 - 서울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연정 · 이미숙(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05-122.
- 이기춘(1985). **소비자능력개발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관한 연구: 청소년소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신 · 유재경(2000). **청소년소비자의 용돈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생활문화 · 예술논집, 23, 83-101.
- 이윤금 · 이남숙(1999). 대학생의 과소비성향과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5), 19-29.
- 이은희(1999). **청소년 소비자의 과소비 성향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31.
- 임정아(2006).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청자(1989).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금전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지연(2005). **고등학생의 가정과 교과에서 건강가족에 관한 교육 요구도 및 가족건강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덕순(1994). **청소년의 금전관리 행동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정 · 이연숙(2007). **청소년의 학교 소비자교육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지식 및 소비행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금수(1999). **청소년의 금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45-62.

- 한성희·강이주(2009). 청소년소비자의 소비주의성향 및 과시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39-153.
- 홍은실(2005). 중, 고,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03-121.
- 홍은실·양남희(2001). 여자고등학생의 가치지향성과 금전사용양식. 금전관리행동의 인과적관계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3(3), 103-118.
- 황덕순(1980).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금전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2), 49-55.
- Moschis, G. P. and Moore R. L., Smith, R. B.(1984), *The Impact of Family Communication on Adolescent Consumer Socializa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314-319.
- Ward & Wackman D. B.(1972), Children's Purchase Influence Attempts and Parental Yield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
- Hallowell, E. M. and Grace, W. J.(1991), *Money and Mind : Money style*. NewYork : Plenum Press.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사용양식과 금전관리행동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자료분석에는 고등학교 914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신뢰도계수(Cronbach's α) 산출, t검정,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점수는 3.36(5점 만점)으로 중간정도의 성향을 보였다. 금전사용양식은 안정형, 과시형, 무관심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무관심형의 평균이 3.33, 안정형은 3.01, 과시형은 2.91이었다. 금전관리행동은 계획, 수행, 평가, 저축으로 이루어졌으며, 계획이 2.81점, 실행이 2.87점, 평가가 2.90점, 저축이 2.50점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이 높은 청소년은 금전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과 과시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지각은 자신의 금전관리행동에도 유의한 정적 차이를 나타내어 자신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합리적인 금전관리행동을 하였다.